



순창군 한돈협회, 설 명절 돼지고기 320kg 기탁

순창군 한돈협회(회장 박영선)는 지난 1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돼지고기 320kg(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남원소방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 등이 있는 임산부를 119구급대가 신속 출동해 안심출산 및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로,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통역의 3차통화도 가능하다.

남원시의 경우 임신부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은 있지만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남원의료원 한 곳으로 다수의 출산 임산부 발생 시 전주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남원시보건소 비대면 금연클리닉실 만족도 높아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대면으로 실시하던 금연클리닉 운영을 코로나19 장기화와 산발적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연을 계획한 흡연자들을 돕기 위한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말과 금연클리닉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금연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금연을 시도하는 자는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양지마을 도시락 봉사자들의 따뜻한 나눔

재난지원금 실시일반 모아 설 명절 도시락 1000여개 전달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양지마을 도시락 봉사자들의 '아주 특별한 봉사활동'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양지마을 도시락 봉사자들'이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주민 집단감염으로 2주간 '통째 격리'됐던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쳤던 시민자립봉사자들을 말한다.

일반시민 1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당시 10여 일 동안 1천여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양지마을 주민들은 물론 의료진과 공무원 등에 전달함으로써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들이 이번에도 양지마을 주민과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음식을 담은 도시락 봉사에 나섰다.

특히 정음시가 지난달 11일부터 100% 사비(110억원)를 들여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자신들이 받은 것에 심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진행한 봉사활동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안모 씨(69대, 연지동)는 "올해 들어 전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의미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 나누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준비한 음식은 오색떡과, 산적, 소고기 무국생화차 네 종류



로, 100세대 분량이다. 신선한 재료를 찾아 발품을 팔았고 연지동 여성문화관에서 꼼꼼하게 다듬고 정성을 담아 맛깔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랑과 정성, 그리고 손맛을 더해 마련된 음식은 1일 점심시간에 맞춰 양지마을 54세대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23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46세대에 전달됐다.

지난 '통째 격리' 때에 이어 도시락을 전달받은 양지마을 주민들은 "두 차례나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도시락 음식을 받으니 코로나19로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봄도 가벼워지고 기운이 난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남원소방서,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일 서장실에서 승진자 2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은 코로나19로 간소화해 진행했으며, 2월 승진자 소방위 이상민, 소방장 임명식에게 승진 임용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했다.

승진자는 각 부서에 배치돼 현장 활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망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치매환자 위한 '시니어 학습지 홈-스쿨링'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임옥)는 1일 2월부터 치매환자를 위한 '시니어 학습지-홈스쿨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치매환자의 사회활동이 감소함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와 무력감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목적을 두고 있다.

'시니어 홈스쿨링'은 치매환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 운영되며, 개인별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 활동과 대상자에게 주간 스스로 과제 활동 학습분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 8주 동안 진행된다.

진안군 치매안심센터는 홈-스쿨링 시작 전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받은 후 인지기능향상 평가를 위해 사전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홈-스쿨링이 끝나는 8주차에 인지선별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학습효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증원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병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익산병원 신상훈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장(이정환)의 지명을 받아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우선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신상훈 병원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구호를 들고 익산병원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등에 게시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박명수 동산병원장, 이태훈 익산시 의사회장, 채관목 익산 원광효도요양병원장을 지목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남원 수지면, 홀로어르신 생일밥상 차려주기 진행

남원시 수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생일을 맞은 갈촌마을 채혜(81), 등동마을 김경(84) 어르신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케익을 전달하며 함께했다.

생일상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 도란도란 얘기할 기회도 얻기 힘들데 생일까지 혼자 보내야 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생일상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지면의 홀로 어르신 생일밥상 차려주기 사업은 홀로 생일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 17명을 찾아 축하와 함께 안부를 물으며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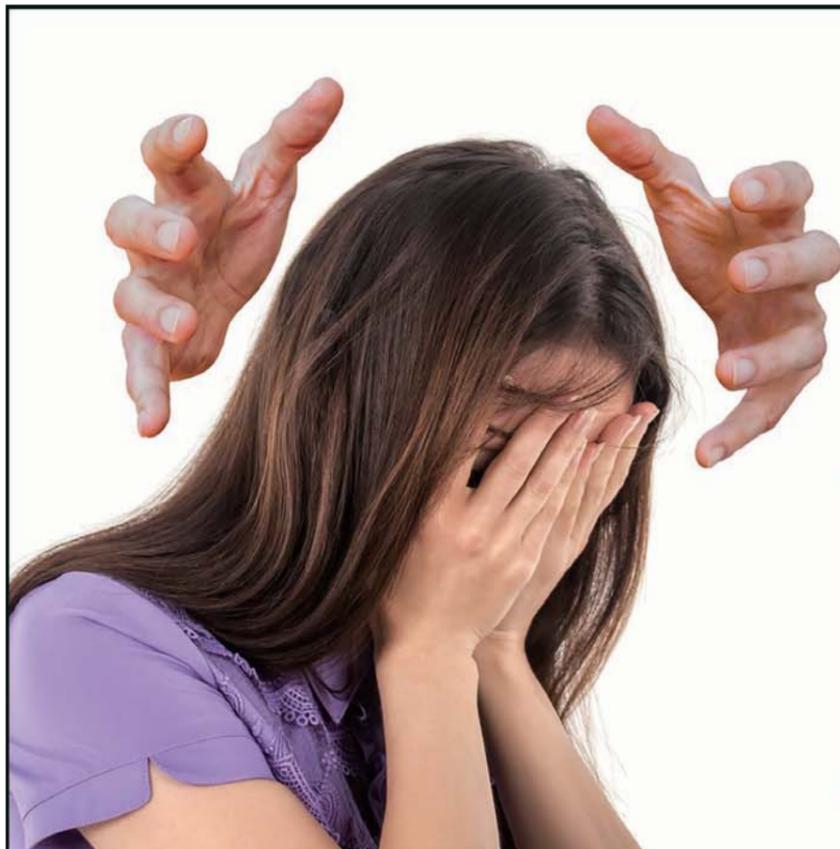


진안군 부귀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진안군 부귀면(면장 한재길) 맞춤형복지팀은 1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어려운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굴된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공적지원과 부귀면 자원봉사단 이웃돕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후원 등을 통한 민간지원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선정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